

# 乙卯倭變考

金 柄 夏

目 次	
1. 序言	5. 乙卯倭變과 小林寺
2. 倭寇와 朝鮮時代의 對日貿易	6. 兩次倭變의 對比
3. 後期倭寇	7. 乙卯倭變이 對日貿易에 미친 影響
4. 乙卯倭變	8. 結語

## 1. 序 言

乙卯倭變은 朝鮮王朝 明宗 10年(1555年)에 일어났던 倭寇의 侵略에 의한 戰亂을 가리킨다. 이 倭變은 倭寇의 性格變化過程에서 나타난 宣戰布告 없는 戰爭이었다. 즉, 종래의 小規模 倭寇와는 規模와 戰爭의 樣相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對日貿易의 展開에 매우 重要的 影響을 미쳤다.

그런데 이 分野는 아직까지 體系的으로 研究된 業績이 거의 없는 것 같다. 乙卯倭變은 5月的 達梁倭變과 6月的 濟州倭變으로 兩分되는데 특히 後者의 研究는 學問의 死角地帶로 남아 있다.

筆者는 오래 前부터 「乙巳條約」의 國際的 環境과 濟州倭變에 대해서 關心을 가지고 資料를 蒐集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의 主題의 原稿請託을 받고 창졸간에 乙卯倭變 全般에 걸친 이와 같은 形式의 글을 쓰게 되었다.

史的 考察의 虛構的 論理가 될런지 모르지만 만약 濟州倭變에 있어서 初戰에 大勝하지 못하였을 경우 惹起될 수 있는 問題의 深刻性을 筆者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論文에서 濟州倭變을 比較的 자세히 다룬 것은 未開拓 分野라는 點 以外에 이와 같은 視角이 갈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論文에서는 乙卯倭變 때 燒失되었다고 생각되는 小林寺에 관해서 周邊問題까지 詳細히 考察하였는데, 그 理由는 小林寺의 遺趾가 이번에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現在 道路擴張工事 때문에 그 一帶가 모두 헤쳐져서 앞으로 調査發掘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sup>1)</sup>

## 2. 倭寇와 朝鮮時代의 對日貿易

高麗王朝 中期에는 日本의 太宰府가 해마다 1回씩 2隻의 進奉船을 派遣하여 貿易하고 있었으나 점차 많은 倭船이 地方領主의 使嗾를 받아서 無秩序하게 往來하고 海賊行爲를 하였다.

倭寇의 掠奪은 高麗末期에 와서 一層 격심하여지고 高麗를 衰退시킨 하나의 原因으로 되었다. 倭寇는 對馬島, 壹岐島, 平戶島 등 주로 西日本海賊이었으며 數百名의 海賊이 20~30隻의 船團을 組織하여 侵犯하였다. 倭寇의 侵奪은 특히 忠正王 2年 以後 激甚하였는데, 辛禑代에는 年平均 14回나 侵犯하여 放火하고 掠奪하여 慶尙道와 全羅道の 沿海地方은 空虛가 되어 蕭然해질 정도였

1) 筆者는 1988年 6月 14日 濟州新聞에 '濟州 乙卯倭變 433주년에 즈음하여' 를 寄稿하여 小林寺 遺趾碑와 小林團 遺趾碑를 세워 더 늦기 전에 유적지를 보존할 것과 濟州大捷紀念 四人馳馬突擊隊像을 건립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 道路擴張工事로 그 일대는 모두 파 헤쳐졌고 '절터'와 '절샘'은 브로도저로 밀려나서 그 위치마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다. 倭寇의 掠奪對象은 쌀과 콩을 비롯한 日常生活 必需品이었지만 地方民을 납치하여가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sup>2)</sup>

高麗王朝를 繼承한 朝鮮은 前王朝의 패권을 이어받아서 곧 日本에 倭寇禁止에 관한 交涉을 하기 시작하였다. 太祖는 즉위하던 해에 使僧 覺鑊을 日本에 派遣하여 足利幕府와 交渉하고 倭寇禁止를 強力히 要求하였다. 그리하여 數年이 지난 뒤에는 正式으로 國交關係가 成立되었다. 太祖 李成桂는 倭寇討伐의 名將으로서 倭寇의 事情을 잘 把握하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倭寇政策을 講究할 수 있었던 것이다. 太祖는 倭寇가 日本 中央政府의 힘만으로는 制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嚴格한 海防政策을 써서 倭寇의 侵犯을 禁制하는 한편 歸順者에 대하여서는 후하게 接待함으로써 倭寇問題를 解決하려 하였다.

太祖의 倭寇懷柔策은 傳統化하여 政府는 그 후에도 倭寇의 首領이나 倭寇와 關係가 있는 西日本의 豪族에게 名譽職 벼슬을 주고 貿易을 許可하여 懷柔策을 施行하였다. 그 結果 많은 倭寇들이 歸順하였고, 使送倭人과 興利倭人の 수는 格증하였다. 使送倭人이란 朝見과 進上의 名目으로 來朝한 日本人을 가리키며, 興利倭人이란 純粹한 日人商人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倭寇는 세 方面으로 分解하게 되었다. 倭寇로 남아있는 경우와 歸順하는 경우, 平和의 交通者로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倭寇로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요 勢力은 明의 南部海岸地方과 東南亞 地域으로 方向轉換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倭寇問題는 成功的으로 일단락되었지만 使送倭人과 興利倭人이 陸繼하여 우리 政府의 經濟的 軍事的 負擔은 增大하였던 것이다.

日本人이 無秩序하게 渡來하면 우리 측 財政負擔이 增大될 뿐만 아니라 平和의 通交를 假裝한 倭寇의 掠奪이 憂慮되므로 日本人의 渡來를 엄격하게 制限하게 되었다. 즉 書契라는 外交文書의 發行權을 西日本의 有力者에게 集約시키는 한편 來朝許可를 받은 者에게는 圖書(도장)와 通信符를 만들어 주었다. 圖書는 銅으로 만든 私印이며 受圖書人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貿易을 許可받

2) 拙著,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 第1章 참조.

은 受圖書人이 使送人을 派遣할 때 書契에 적어 證據로 삼았다. 朝鮮官吏는 書契에 적힌 圖章을 浦所와 禮曹에 備置한 印鑑臺帳과 對照하여 一致하면 規程에 따라 接待하며, 貿易을 許可하게 되는 것이다. 通信符는 日本國王使와 巨曾使 등 巨物級 通交者의 詐稱을 防止하기 위하여 發給한 銅製勘合符이다. 大內氏에게 贈與한 通信符는 通信符라는 文字를 篆字陽刻한 銅印을 兩分한 右符이다. 左符는 禮曹에 保管하여 두었다가 使人이 가지고 온 右符와 合致하면 接待하고 貿易도 許可하였다. 다른 하나의 通信符는 象牙로 된 것이며, 日本國王 足利將軍에게 贈與한 것이다.

이와 같은 制度는 對日國營貿易을 위하여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貿易回數를 制限하지 아니하면 財政上의 壓迫은 면할 수 없다. 그리하여 每年來朝할 수 있는 使送船 즉 歲遣船數를 定하게 되었다. 世宗 25年(1443年)의 癸亥條約에서 對馬島主의 歲遣船數를 50隻으로 定하였다. 그 밖에 特別한 경우에 特送船을 보낼 수 있으며, 每年 歲賜米라 稱하는 援助米豆 200石을 支給하기로 決定하였다. 使送回數의 制限은 아시아의 國際秩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國이 朝貢回數를 制限한 것이라든지, 高麗가 日本의 進奉船을 定約한 것, 朝鮮政府가 女眞에 대하여 歲朝를 制限하고 文引制度를 實施한 것과 같은 것이다. 文引制度는 일종의 通行確認制度로서 朝鮮은 日本人의 來朝制限에도 이 制度를 實施하였다. 즉 對馬島主의 實力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日本國王使와 巨曾使 以外の 朝鮮으로 渡航하는 모든 船舶은 對馬島에 登陸島主의 文引을 받아야만 入國을 許可하였던 것이다. 우리 政府가 對馬島主에게 文引發給權을 賦與한 것은 日本人의 渡來를 制限하고 倭寇가 아님을 確認하기 위한 것이지만, 對馬島主는 文引을 發給함으로써 吹舉錢이란 手數料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島主의 收入을 增大시키는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sup>3)</sup>

이 밖에 貿易港과 居留地를 制限한 것도 貿易을 統制하고 國家機密을 維持하는데 重要하였다. 交通과 通信이 發達하지 못한 당시에 있어서 貿易港이 分散되어 있으면 管理하기가 힘들고 無秩序하게 渡來하는 日本人을 効果적으로 統制할 수 없기 때문에 浦所를 限定하게 되었다. 日本商船에 대하여 最初로

3) 同上

貿易港을 指定한 것은 太宗初이며, 水軍都萬戶의 所在地인 東萊의 富山浦와 熊川의 乃而浦가 指定되었다. 富山浦와 乃而浦가 對日貿易港으로 指定된 지 20餘年後인 世宗 8年(1426年)에는 蔚山の 鹽浦가 追加되어 三浦로 되었으며, 三浦 以外에 往來하여 貿易하는 者는 海賊으로 看做하여 嚴重히 다스렸다. 그리하여 每年 200艘에 달하는 船舶이 三浦에 入港하여 貿易하게 되었던 것이다.

三浦에는 使船이 入港하면 接待하기 위하여 設置한 倭館이 있었다. 倭館은 日本人 接待場所임과 同時에 宿泊所이며 商館이었다. 三浦는 80年 내지 100餘年間 꾸준히 發展하여 港灣施設도 改善되었고 日本人 居留者數도 增加하였으나 三浦倭亂을 契機로 하여 크게 變動하였다. 즉 中宗 5年(1510年) 三浦恒居倭의 亂動事件이 일어나자 壬申約條를 締結하여 貿易港을 齊浦(乃而浦) 1個港으로 限定하였다. 그 後 日本人의 懇請으로 中宗 16年(1521年)에는 釜山浦를 開港하게 되었지만 日本人의 亂動이 끊이지 않아서 明宗 2年(1547年)에는 丁未約條가 成立되었고 貿易港은 釜山浦 1個港으로 縮少되었으며 開港 직전까지 唯一한 對日貿易港으로 되었다. 壬辰倭亂(1592~1598年) 直後 倭館은 暫定的으로 釜山 影島에 設置한 일이 있었으나 國交가 正常化함에 따라 戰前의 釜山 鎮城舊基의 豆毛浦에 新築하였다. 豆毛浦倭館은 70年間 存屬되다가 肅宗 4年(1678年)에는 草梁으로 移設되었고, 倭館에는 對馬藩에서 駐在員이 派遣되어 貿易과 外交關係를 擔當하게 되었다.<sup>4)</sup>

朝鮮時代의 對日貿易은 아시아의 國際秩序의 一環으로 이루어졌다. 中國과 周邊諸國間의 朝貢貿易體制의 縮少形態로 對日貿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當時에도 日本에는 形式上으로 天皇이 있기는 하였으나 實權이 없었으며, 最高實權者는 幕府의 大將軍이었다. 大將軍 足利義滿은 明의 冊封을 받고 日本國王이라 칭하여 明에 朝貢하였다. 아시아의 國際秩序에서 보면 日本國王과 우리나라의 王과는 對等한 關係에 있었다. 그리하여 日本과는 交隣關係가 맺어지고, 交隣은 禮로써 하고 禮는 반드시 物質로써 하여야 한다는(交隣以禮 禮必以幣) 정신하에 禮物交換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對馬島主等 日本國王 以外의 諸豪族 및 우리나라의 名譽職을 받은

4) 拙稿, "李朝時代의 對日貿易", 《韓國貿易史》第3章, 韓國貿易協會 참조.

受職人과는 朝貢貿易을 하게 되었다. 朝貢貿易은 朝貢하는 나라가 有利하다. 우리나라는 名分을 尊重하였음에 대하여 日本은 實利 爲主의 低姿勢 貿易을 追求하였다.

當時의 輸出品에는 織物과 大藏經, 人蔘 등이 있었고, 輸入品에는 銅, 鐵, 金, 銀, 硫黃 등의 鑛山物과 蘇木, 胡椒등의 東南亞 產物이 있었다. 그 밖에 一定한 反對給付를 받고 輸出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日本에 보낸 援助 米穀도 10萬石을 훨씬 超過하였다. 生産性이 낮은 段階에 있어서의 그 價値는 매우 큰 것이었다.

對日輸出 織物中에서 가장 많이 輸出되는 것은 綿織物이었다. 1년에 50萬匹 輸出한 해도 있었다. 對日綿織物 輸出은 朝鮮後期보다도 前期가 더 많았다. 當時 우리나라의 綿織物 産業은 日本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었다. 日本과 綿織物 去來를 하는 동안에 우리 나라의 木花種子가 日本으로 傳하여졌고, 16世紀 부터는 日本에도 점차 綿業이 普及되어 우리나라 綿織物 需要는 줄었지만, 해마다 5萬 6,000匹 以上이 官貿易으로 輸出되었다. 密輸出된 것까지 합하면 그 量은 훨씬 더 많아진다. 綿織物 輸出은 朝鮮後期에 相對的으로 줄었지만 人蔘 輸出量은 增加되었다. 朝鮮前期까지만 하더라도 人蔘은 自然生의 山蔘을 採取하여 輸出하고 있었으나 朝鮮後期에는 人蔘 栽培方法이 開發되어 多量의 수출을 보게 되었다. 肅宗代에 輸出된 人蔘만도 6萬斤 以上이었다.<sup>5)</sup>

輸出品의 大宗을 이룬 것은 綿織物과 같은 工業製品이었음에 대하여 輸入品은 銅, 硫黃, 蘇木, 胡椒와 같은 原料品이었다. 銅, 硫黃 등은 日本國內產物이었으나 蘇木, 胡椒와 같은 것은 東南亞의 熱帶產物로서 琉球의 中繼에 의하여 入手한 것을 再輸出한 것이다.

朝鮮前期에 多元的으로 展開되던 對日貿易은 점차 一元化되었다. 對馬島는 土地가 척박하여 島主의 財政은 農業보다도 貿易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고, 朝鮮政府는 禁寇政策上 親韓族인 宗氏의 勢力이 強化할 것을 期待하는 한편 對馬島에의 貿易集中化 政策을 施行하고 있었으므로 多元的 對日貿易은 점차 一元化하게 되었던 것이다. 朝鮮前期인 16世紀에도 實質的으로는 對馬島가

5) 同上

朝鮮貿易權을 掌握하는 傾向이 있었지만, 朝鮮前期의 後期에는 名實 共に 對馬藩이 朝鮮貿易을 獨占하고 있었다. 朝鮮後期에는 우리 나라에서 通信使가 派遣되어 禮物交換을 하였으나 그것은 12회에 지나지 않았고 主로 對馬藩이 日本國을 代表하여 貿易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日本使船이 貿易港에 到着하면 地方官이 臨檢하고 格式에 따라 接待하며, 一部는 上京시켜 朝見케 하던 朝鮮前期의 制度가 一變하여 倭人の 上京을 不許하게 되었고 倭館과 東萊府가 外交와 貿易關係를 管理하게 되었다.

對日貿易은 國營貿易 즉 公貿易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私貿易과 密貿易도 행하여지고 있었다. 私貿易은 우리 나라의 一般商人을 相對로 한 官許貿易이며, 密貿易은 禁制品을 몰래 去來하는 貿易이었다.

이상과 같이 朝鮮時代의 對日貿易은 倭寇와 매우 밀접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太祖의 懷柔政策 이후 歷代 國王이 對日貿易을 持續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은 倭寇의 侵犯을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對日貿易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官主導下에 公貿易 爲主로 經營하려고 努力한 것도 渡來한 日本人이 어느 때 海賊으로 변할 지 모르기 때문에 貿易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輸入品の 內容을 보면 銅·硫黃·蘇木·胡椒 등과 같이 需要가 큰 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時期의 對日貿易은 倭寇의 消長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 3. 後期倭寇

朝鮮時代에는 對倭寇政策의 成功으로 倭寇의 性格은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學界에서는 高麗末까지의 倭寇를 前期倭寇라 하고, 그 以後의 倭寇를 後期倭寇라고 한다. 前期倭寇가 우리나라를 主要 掠奪對象으로 삼았음에 대하여 後期倭寇이 特徵은 掠奪의 對象地를 中國과 東南亞 地域으로 轉換하였다는 것과, 그 構成員이 日本人 倭寇뿐만 아니라 中國人·포르투갈人 등 國際的 混成倭寇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時期에는 倭寇로 假裝한 中國人 海賊도 많았다. 特히 16世紀의 中國의 沿海에 있어서는 所謂 裝倭와 僞倭의

數가 眞倭의 數보다 많았다. 崔溥(1454~1504)의 「漂海錄」에는 15世紀末葉 中國沿岸의 住民이 明政府로부터 賞賜를 받으려고 漂流人을 倭寇로 處斷하고 官府에 報告하려던 모습과 中國人의 海賊行爲에 관하여 記錄되어 있다.<sup>6)</sup> 中國과 東南亞諸國의 處地에서 보면 後期倭寇는 前期倭寇와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威脅的 存在였으며 明政府를 滅亡시킨 原因의 하나로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被害의 轉嫁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朝鮮前期에 倭寇問題는 해결된 것 같이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도 眞倭의 掠奪은 根絶되지 아니하였다.

太祖 2年(1394年)부터 太宗 18年(1418年)까지 25年間에 122회의 倭寇의 侵犯이 있었다. 年平均 4.8회의 侵犯을 받았던 것이다. 倭寇의 侵犯이 絶정에 달하였던 高麗末 즉 恭愍王 元年(1352年) 부터 恭讓王 2年(1391年)까지 年平均 7회의 侵犯에 비하면 侵犯頻度가 激減되었다. 그리고 이 時期에 있어서는 倭寇 侵犯의 頻度뿐만 아니라 規模에 있어서도 크게 줄었다. 高麗末에는 20~30隻의 船團을 조직하여 侵犯하여 防火하고 米豆를 掠奪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sup>7)</sup> 朝鮮初期에 와서는 1隻 또는 2~3隻이 보통이었고, 20隻 以上の 船團을 조직하여 侵犯하는 일은 많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倭寇의 事實上의 頭目인 地方 豪族들이 朝鮮의 對倭政策에 順應하여 通交의 主體로 변하고 集團의인 侵犯을 지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豪族이 背後에서 使嗾하지 않은 한 大規模 船團의 組織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侵犯 對象地는 주로 慶尙道·全羅道·忠清道·京畿道·黃海道이며, 다음이 平安道·江原道の 順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全羅道와 慶尙道の 被害가 컸다. 朝鮮王朝가 創建된 太祖朝에 있어서는 全羅道가 9회의 侵犯을 당하였고, 慶尙道는 17회의 侵犯을 당하였었지만, 太宗朝에 와서는 事情이 달라졌다. 慶尙道는 14回 侵犯 당하였음에 대하여 全羅道는 2倍 以上인 32回나 侵犯당하였다. 이와 같이 全羅道の 侵犯 당한 回數가 2倍 以上 急増한 것은 첫째로, 慶

6) 拙稿, 「漂海錄解題」, 《韓國經濟史文獻資料》第7輯 참조.

7) 恭愍王 12년에는 213隻의 船團으로 喬桐을 侵犯한 事實이 있다. 《高麗史》, 卷40, 世家 40, 恭愍王 12年 4月, 乙未條.



尙道 近海는 使送船이 往來가 頻繁하기 때문에 大規模의 私的 倭寇船舶은 이를 回避해야 했으며, 들째로 小規模의 集團으로 掠奪하기 쉬운 島嶼가 많고, 세째로 背後에 穀倉地帶를 가진 全羅道 沿岸地方이 米穀掠奪이 容易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倭寇에 의한 全羅道 沿岸地方의 被害는 世宗朝에 와서 相對적으로 커졌다. 이 時期에는 倭寇船團의 規模가 더욱 작아져서 1~2隻이 侵犯하는 예가 大部分이었고, 回數도 年平均 1.5회로 減少되었으나 世宗 元年부터 25년까지 慶尙道는 6回 侵犯당하였음에 대하여 全羅道는 4倍인 24回 侵犯당하였다.

太宗朝 以後의 倭寇侵犯의 또 하나의 特徵은 島嶼가 주요한 掠奪 對象地로 되었다는 것이다. 倭寇의 島嶼侵犯은 太宗 6年(1406年) 以後에 顯著하게 나타났고, 世宗朝에 있어서는 37회의 侵犯 중에서 島嶼侵犯은 22회였다. 이것은 船團의 規模가 零細하여짐에 따라 倭寇들은 防衛가 허술하고 小規模 掠奪이 容易한 島嶼를 選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高麗末까지 地方豪族들이 實質적으로 倭寇의 頭目 役割을 할 때에는 大規模 船團의 組織이 可能하였고, 大規模의 倭寇船團은 島嶼 보다도 掠奪對象物이 豊富한 陸地를 侵犯하였으나 朝鮮의 倭寇對策이 바뀐 이후 事情이 달라졌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高麗末까지의 倭寇의 大規模 掠奪의 情性은 우리나라의 對倭政策 轉換의 過渡期라고 할 수 있는 太祖朝까지 어느 정도 持續되다가 倭寇統制가 定着되었다고 생각되는 太宗 6年頃부터 樣相이 달라지고 私的 倭寇가 防衛의 脆弱地域을 택하여 斷續적으로 掠奪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朝鮮 太祖의 倭寇終熄을 위한 積極的·現實的 對策은 그 以後의 國王에게 引繼되어 倭寇懷柔가 傳統化하였다. 그 結果 倭寇는 여러 갈래로 分化하게 되었다. 商倭가 되어 直接 貿易에 從事하거나 頭目的 役割을 하던 豪族의 경우처럼 背後에서 使人을 시켜 貿易을 經營하는 경우도 있었고, 投降하여 歸化人이 되거나 歸鄉하여 生業에 從事하는 者도 있었다.<sup>8)</sup> 太宗의 勞力에 의하여 同 6年(1406年)에는 過去 어느 때보다도 日本으로부터 平和의 通交者가 많이 渡來하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霧圍氣가 그 후 持續됨에 따라

8) 拙著,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 第1章 參照.

日本國內에 있어서의 對朝鮮貿易權에 있어서도 變化가 일어났다. 對馬島主人 宗家가 점차 貿易을 獨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傾向은 世宗朝에 와서 더욱 顯著하여졌다. 對馬島가 倭寇의 主要 巢窟임을 알고 있던 世宗은 元年(1419年) 6월에 對馬島征伐을 斷行하였다. 그 후 朝廷에서는 여러 차례 對馬島 再征伐에 대하여 舉論하였으나 結局 平和의 通交政策을 택하게 되었다. 世宗 8年(1426年)에는 蔚山 鹽浦를 追加로 開港하여 倭人들은 乃而浦·富山浦와 더불어 三浦에서 貿易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三浦는 中宗 5年(1521年)의 倭亂을 契機로 統廢合 되었지만, 朝日貿易은 持續되었다. 土地가 척박한 對馬島의 宗家は 對朝鮮貿易이 生命線과 같았으므로 地理上의 利點을 利用하여 貿易權을 獨占하려고 하였다. 對馬島主는 渡航證明인 文引發行權을 利用하여 貿易權을 買取하였고, 結局 貿易權이 對馬島主에게 集中되었다.

이와 같은 貿易權集中 過程에는 貿易性格의 變化도 크게 作用하였다고 생각된다. 倭寇防止에 端緒를 둔 朝鮮의 積極的인 交隣外交가 効力を 發揮하여 日本人들이 多元的으로 通交하게 되었고, 世宗朝 以後는 그것이 점차 몇 개의 核으로 統合되는데, 名譽를 버리고 實을 取하는 日本人의 態도와 實보다는 大國意識을 가지고 名譽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基本態度에는 變함이 없었으나 16世紀에 와서 交隣과 朝貢은 完全히 形式化하고 商業的 性格이 크게 露出되었다.<sup>9)</sup> 아시아型 貿易體制下에서는 交隣以禮하고 禮必以幣하는 것이 原則이었으므로 日本인의 進獻品에 대한 우리 側의 回賜品の 質量에 대해서는 異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15世紀末부터 “倭人 以進上之物 回賜不足 慍於言色 至於賜宴之時 怒不受宴”<sup>10)</sup>과 같은 現象이 일어났고, 16世紀에 와서는 一般化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은 商業的 性格이 露出됨에 따라 日本의 通交者들은 貿易權을 公公然하게 去來의 對象으로 삼게 되었고, 對馬島主는 그것을 買取하여 獨占하게

9) 同上

10) 《成宗實錄》卷160, 14年 11月 壬辰. 그밖에 同書 卷 190, 17年 4月 癸未條. 《中宗實錄》卷 55, 20年 8月 丙午, 9月 辛巳, 辛酉條 참조.

11) 拙著,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第1章, 참조.

되었다. 島主의 處地에서는 貿易權을 實質的으로 掌握하여 規程에 따른 貿易을 反覆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忠誠心을 보이기 위하여 私的 倭寇의 團束에 特別히 關心을 가질 필요는 없게 되었다. 특히 中宗 7年(1512年) 壬申 約條가 成立된 前後의 倭寇의 動向에서 이와같은 事情을 엿볼 수 있다.<sup>12)</sup>

中宗 5年(1510年)에 發生하였던 三浦倭亂은 三浦恒居倭人이 對馬島倭人과 結託하여 일으킨 暴動이었다. 暴動을 일으키면 日本人의 朝鮮에 대한 傳統的인 朝貢과 交隣에 금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三浦恒居倭人은 對馬島 宗家の 指示를 받은 代官 宗盛親과 共謀하여 暴動을 일으킬 것을 오래 전부터 計劃하고 있었는데, 慶尙右水使의 倭人殺害事件을 트집 잡아 4月 4日 새벽 僉使營과 縣城, 巨濟島 水軍根據地를 일제히 攻擊하였다. 暴動은 官軍에 의하여 곧 鎮壓되었고, 2年後에 成立한 壬辰約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結果的으로 恒居倭와 對馬島 宗家は 不利해졌다. 朝日貿易에 있어서 對馬島主의 朝貢的 性格보다는 商業的 性格이 強해진 結果로 나타난 暴動은 倭人들에게 不利하게 되었지만, 對馬島 財政을 위해서 實利를 취하여야 한다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었다.

對馬島側의 實利志向의 原則에서 보면 구태여 倭寇의 掠奪을 團束할 必要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默認하였으므로 中宗朝 以後는 大規模 侵犯의 蓋然性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12) 壬申約條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三浦勿許居, (2) 島主歲遣船五十隻 今減其半, (3) 歲賜米·太二百石 今減其半, (4) 勿遣特送 如有所言事 因歲遣船來告, (5) 島主子及代官·受職·受圖書人等 賜米·太·歲遣船 並除, (6) 非島主所遣 而加德島近處來泊船 並以賊倭論斷, (7) 深處倭或受職或受圖書來通者 其歲月久近 功勞緊歇 量減 其許通人內 受圖書者 改給圖書, (8) 凡出來倭人 自對馬島 至善浦直路外 旁行他路者 以賊倭論, (9) 上京倭人 國王使臣外 依中朝例 勿許持刀劍事

## 4. 乙卯倭變

### 1. 第1次 侵入(達梁)과 抗戰

위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高麗末까지 우리나라를 주로 掠奪의 對象으로 삼았던 前期倭寇는 朝鮮時代에 主要 掠奪地를 中國과 東南亞로 方向轉換을 하였다. 그러나 後期倭寇 段階에 와서도 私的 倭寇의 小規模 侵犯은 持續되었다. 歲月이 흐름에 따라서 倭寇의 侵犯 頻度는 減少되었으나 朝貢的 性格이 弱해지고 實利爲主의 商業的 性格이 커짐에 따라 中宗朝 以後의 倭寇의 侵犯은 樣相을 달리하였다. 즉, 島主의 默認내지 幫助下에 倭寇가 大規模化하였다. 이 때에는 中國海賊도 끼어서 海賊團의 國際化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中宗 39年(1544年)의 蛇梁倭變은 그 最初의 事例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해 4月 12日 새벽 20餘隻의 倭寇 船團이 慶尙南道 統營郡 蛇梁鎮(琴坪里) 동쪽 江口에 侵入하여 200餘名이 城을 둘러싸고 我軍과 接戰, 우리 水軍 1名을 殺害하였고 10名이 負傷하였다.

그런데 이 때부터 11年後인 明宗 10年(1555年 乙卯)에는 蛇梁倭變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倭寇가 大舉 侵入하였다. 1次 侵犯은 5월에 있었고 2次 侵犯은 6월에 있었다. 우선 1次 侵犯부터 보기로 한다.

이 해 5月 11日 70餘隻의 倭寇 船團이 全羅道 靈岩의 達梁浦 즉 지금의 海南郡 北坪 南倉里 앞 海上에 碇泊했다가 東西로 나뉘어 達梁浦와 梨津浦(梨津里)에 上陸하여 城外의 民家에 防火한 다음 達梁城을 包圍하였다. 처음에는 倭寇는 上陸한 후 號角을 불고 槍을 휘두르며 칼을 들고 攻擊하였다. 加里浦 僉使 李世麟이 全羅兵使 元績에게 馳報하자 元績은 長興府使 韓蘊 및 靈岩郡守 李德堅과 더불어 軍士 200名을 거느리고 救援하려고 達梁으로 달려갔다가 包圍되었다.<sup>13)</sup>

13) 《明宗實錄》卷18, 10年 乙卯 5月 己酉·癸亥·壬子條 참조.

이 急報는 全羅道 觀察使 金澍 이름으로 5月 16日 서울에 傳하여졌다. 三公 및 贊成·六曹判書·備邊司 堂上들을 賓廳에 모여 對策을 論議하였다. 領議政 沈連源의 意見에 따라 朝廷에서는 李浚慶을 全羅道 都巡察使로 삼고, 金景錫을 右道防禦使로, 南致勳을 左道防禦使로, 曹光遠을 慶尙道 都巡察使로, 趙安國을 左道防禦使로, 尹智先을 右道防禦使로, 張世豪를 清洪直防禦使로 任命하였고, 우선 全羅道 防禦使와 道巡察使를 急派하였으나 事態는 이미 深刻해지고 있었다. 그 사이 全羅兵使 元績과 靈岩郡守 李德堅, 長興府使 韓蘊이 3日間 包圍되었다. 城中에 備蓄해 두었던 食糧은 바닥이 났고 元績과 韓蘊은 殺害되었으며 城은 陷落되었다. 이 때 靈岩郡守 李德堅은 살아 남아서 軍糧 30石을 要求하는 敵의 書契를 가지고 歸還하였는데, 朝廷에서는 後에 그를 問責하여 斬刑에 처하였다. 그 후 倭寇들은 닥치는대로 掠奪과 放火를 恣行하였으며, 康津郡의 兵營을 비롯하여 長興·高興 등 여러 고을이 占領당하였다.<sup>14)</sup> 凶年이 든데다가 兵使 元績이 殺害되어 民心이 흉흉하였기 때문에 倭寇討伐이 遲延되었다. 그러나 全羅道巡察使 李浚慶 등이 靈岩에서 善戰하였고, 官軍과 義兵이 끈질기게 抗戰하였다. 예컨대, 海南官奴 李永孫은 首級倭寇를 殺害하였다. 이와 같은 抗戰 때문에 倭寇는 5月末頃에 退却하였다.<sup>15)</sup>

## 2. 第2次 侵入과 濟州大捷

達梁倭變에서 退却한 海賊은 약 1個月後에 濟州島를 侵犯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點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하고, 우선 濟州島 및 濟州島 往來 船舶이 倭寇에 의하여 어떻게 侵犯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濟州島는 前期倭寇의 巢窟인 北九州 平戶島와 對馬島·壹岐島와 가깝고, 絶海孤島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倭寇의 侵犯을 당하였는데, 朝鮮時代에는 後

이 때 70餘隻의 倭船이 侵入했다는 全羅道 觀察使의 報告는 약간 誇張되었다고 생각된다. 同書 5月 癸亥條 ‘初 倭船六十餘艘 泊全羅道達梁鎮海口’로 되어 있다.

14) 同書 참조.

15) 同上

期倭寇가 中國으로 往來하는 航路上에 位置하여 더욱 頻繁하게 掠奪을 당하였다고 생각된다.

〈表1〉倭寇侵犯의 推移

年	備 考
太宗 1年(1401年)	倭寇 郭支
4年(1404年)	倭寇 高內及明月(2月 數 10隻 來侵)
6年(1406年)	秋七月 倭賊來侵 自山南 揚帆至竹島 屬大靜安撫使李原恒 判官陳遵等 迎擊之 賊乃退(16隻 來侵. 이무렵 추자도에 14척來侵)
8年(1408年)	倭寇 朝貢川(1隻 來侵)
太宗15年(1415年)	六月 倭船二十三艘 寇濟州
18年(1418年)	倭寇 牛屯友浦遮蹄等地(이무렵 濟州漕船 掠奪당함)
世宗 1年(1419年)	九月 倭賊 寇濟州
12年(1430年)	濟州牧使金洽 倭賊一艘 與戰勢泊 自沉于海 斬獲九人
文宗 1年(1451年)	倭賊入寇 安賊使李鳴謙 擊走之
中宗35年(1540年)	八月 以倭 寇害民 罷去
明宗 5年(1550年)	倭船侵入 掠人民 奪漁船
7年(1552年)	五月 倭賊與中國客商等 八艘漂到 旌義川尾浦 殺掠人民 官軍擊退 餘賊三十餘名 登漢孛山 藏伏林藪中 官軍生擒倭賊 望古三夫羅 餘賊潛奪 本鎮漁艇遁去 朝廷以從賊 逮牧使金忠烈 流望古三夫羅 于成川府
9年(1554年)	七月 牧使南致勤 捕倭賊二艘 以功加資
10年(1555年)	六月 倭賊來侵 金秀文等 擊破之時 倭賊六十艘連陷全羅道長興 康津等八鎮 因來犯禾北浦 圍州城三日 金秀文等 力拒之 竣其退率 輕銳追擊大破 斬獲甚衆
10年(1555年)	八月 獲倭寇二艘
13年(1558年)	十月 牧使閔應瑞 以倭變 失路逮去
宣祖14年(1581年)	獲倭寇二艘 於牛島附近

※ 이 表는 〈耽羅誌〉 〈耽羅紀年〉 등에 의하여 作成하였음. 「備考」中의 括弧部分은 〈朝鮮王朝實錄〉을 參考하여 필자가 添加하였음.

交通·通信이 發達하지 못한 時代에 있어서 絶海孤島인 濟州島의 倭寇侵入은 文獻上에 記錄된 것 보다 훨씬 頻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太宗朝 以後

記錄으로 倭寇의 侵奪이 크게 增加하고 있는 것은 倭寇의 性格變化와 濟州島가 倭寇의 中國侵入 航路에 位置하고 있다는 地理的 條件을 反映하고 있다. 특히 倭賊의 侵犯이 빈번한 것은 明宗朝이다. 한참 동안 小康狀態가 維持되다가 明宗朝에 와서는 빈번하게 侵犯하였다. 明宗 5年(1550)에 이어 同7年(1552年)에는 中國海賊을 낀 倭寇가 8척의 船舶에 分乘하여 旌義川에 侵入, 백성을 殺掠하였다. 官軍이 일단 擊退시켰지만 餘賊 30여명은 漢拏山에 올라가서 숲속에서 숨었다. 官軍은 그 중 望古三夫羅를 生捕하였으나 殘賊은 漁船을 훔쳐서 도망갔다.<sup>16)</sup> 望古三夫羅는 朝鮮前期에 우리나라에 온 對馬島 出身 倭人中에 흔히 찾아 볼 수 있던 이름이다. ‘마고사부로’를 漢字로 借音한 것이 아닌가 한다. 日本人의 이름인 望古三夫羅를 生捕하였다는 事實만으로도 日本人이 主動이 된 海賊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다만 “倭賊與中國客商等”<sup>17)</sup>이란 記錄으로 보아 이 때의 倭寇는 假倭가 끼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明나라와의 友好關係 또는 事大思想 때문에 ‘中國客商’으로 記錄되었을 뿐이지, 掠奪을 행한다는 點에 眞倭와 다름 없었다. 中國人 海賊이 日本人 海賊과 野合하여 假倭·裝倭가 되는 것은 이 時期에 있어서의 一般적 現象이었던 것이다. 즉, 中國人 海賊과 中國沿岸의 외딴 섬에서 野合하여 掠奪行爲를 하였는데, 이때 中國人海賊도 倭寇를 假裝하였다.

明宗9年(1554年)에도 倭寇가 侵犯하여 海賊船 2척을 拿捕한 일이 있는데, 이 때에도 中國人 海賊이 끼어 있었다. 『明宗實錄』에 의하면 9年 7月 12日(庚戌條) 三公은 濟州에서 生捕한 中國人이 낀 倭寇의 送還問題로 論難하였다. 몇 척이 侵犯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때의 侵犯 規模는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明宗 10年(1555年 乙卯) 6月の 倭寇는 規模가 劃期的으로 컸다는 特徵이 있다. 濟州牧使 金秀文의 狀啓에 의하면

“六月二十七日 倭賊無慮千餘人 下陸結陣 臣抄率 曉勇軍七十人 突入陣相距三

16) 《耽羅紀年》卷2

17) 《耽羅紀年》卷2

十步 倭人中箭者甚多 而尙未退兵定 虜衛金直孫 甲士金成祖 李希俊 保人文時鳳 四人馳馬突擊 賊軍潰散 有一倭將 著紅毛頭具也 自恃其能射 獨不退北 正兵金夢根 射中其背 即顛仆 我軍乘勝追擊 斬獲甚衆”<sup>18)</sup>

과 같이 明宗 10年 陰曆 6月 27日 1,000餘名이 倭賊이 侵犯하였다. 濟州牧使 金秀文은 曉勇軍 70名을 뽑아 敵陣에 突入하였다. 30步의 距離를 두고 對峙하다가 金直孫·金成祖·李希俊·文時鳳 등 4人이 말타고 突擊하여 潰散시켰다. 正兵 金夢根은 紅毛의 倭將 등을 쏘아 쓰러뜨렸다. 我軍은 乘勝追擊하여 斬獲이 甚衆하였다는 것이다. 「明宗實錄」에 의하면

“己亥 下書于濟州牧使金秀文曰 自聞倭賊犯境以來 深念孤島絕遂兵力……前月二十七 日 克捷之狀予心之憂 十減七八……以寡擊衆 致此大捷乎 金直孫等四人 突擊之功 亦不爲少……史臣曰 靈巖之守城濟州之破賊 不可不賞”<sup>19)</sup>

과 같이 濟州牧使의 狀啓는 그 해 7月에 도착하였고, 7日(己亥)에 濟州牧使에게 下書하였다.<sup>20)</sup> 朝廷에서는 적은 數로써 많은 倭賊을 물리쳐서 이긴 濟州大捷을 매우 重要視하여 有功者에게 應分の 賞을 내렸다. 특히 金直孫·金成祖·李希俊·文時鳳 등 四人突擊隊의 功이 컸음이 指摘되고 있다.

乙卯倭變을 일으킨 倭賊團이 純粹하게 日本人만으로 構成되었는지 또는 中國人을 包含한 東南亞의 外國人도 끼어 있었는지 確實치 않으나 이들이 明宗 10年 5月에 達梁浦에 侵入했던 倭寇와 同一 集團이라고 생각된다. 達梁浦 侵入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倭賊의 立場에서 보면 濟州倭變은 그들의 死活問題가 걸려 있는 挑戰이었다. 乙卯(濟州)倭變과 濟州大捷에 관해서 「耽羅紀年」에는 더 자세하게 記錄되어 있다.

18) 《明宗實錄》卷19, 10年 7月 戊戌條

19) 同上

20) 同書, 明宗 10年 7月 己亥, 壬申條



“六月 倭賊來侵 金秀文等 擊破之時 倭賊六十餘艘 連陷全羅道長興康津等八鎮 因來犯禾北浦 圍州城三日 金秀文等 力拒之 俟其退率 輕銳追擊大破 斬獲甚衆 朝廷嘉之 賞秀文嘉義 加賜表裏一襲 遣弘文校理尹毅中 來宣慰”<sup>21)</sup>

와 같이 倭賊 60餘艘가 長興, 康津 등 8鎮을 連陷하여 濟州 禾北浦를 侵犯하였고 濟州牧州城을 圍繞 3日間 戰鬪가 벌어졌다. 60餘艘의 倭賊의 來侵은 劃期的이며, 上揭 『明宗實錄』의 “倭賊無慮千餘人”이 그리 과장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濟州牧使 金秀文은 士氣를 잃은 軍卒만으로는 勝算이 없다고 判斷하고 勇敢한 軍人 70名을 선발하여 敵陣 앞에 對峙시키고, 4人의 馳馬突擊隊를 組織하여 濟州大捷의 決定的 契機가 되게 하였다. 上揭 『耽羅紀年』에 의하면

“土人 金成祖 當倭變 以後軍將 敗賊于南水口 賞建功將軍”<sup>22)</sup>

과 같이 濟州出身 金成祖 後軍將은 南水口 戰鬪에서 이겨 建功將軍階가 授與되었다. 4人의 馳馬突擊隊員 중에서 後述하는 바와 같이 金成祖將軍에게 내린 賞이 가장 厚했던 것을 보면 勇敢한 名射手였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濟州大捷에서 我軍은 數百名의 敵을 射殺하였다는 말이 傳해져 내려오고 있다. 『耽羅志』 名宦條에 보면 이 때 捕獲한 敵船은 9척이었다.

이 戰鬪에서 我軍이 크게 이길 수 있었던 要因으로서 4人의 馳馬突擊隊 뿐만 아니라 金秀文牧使의 戰略 및 리더쉽과 義兵의 活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有功者에게는 應分の 賞이 내려졌다. 金秀文牧使에게는 비단옷 한 벌과 資憲

21) 《耽羅紀年》卷2

22) 同上

23) 《羅州金氏族譜》에 실린 〈建功將軍公行狀〉에는 ‘公揚鞭叱之上馬 不半日 馳四百里 回輻於是倡義 躍馬入賊陣中 一身衝突 所首或甚衆 賊大驚 自相躡躩卷曳而退南土 獲安州牧’이라 하여 그의 勇敢성과 善騎·善射한 事實에 관하여 記錄되어 있다.

大夫의 賞이 주어졌다.<sup>24)</sup> 특히 金成祖 將軍의 경우는 비단옷 한 벌과 建功將軍(兵馬僉節度使) 以外에 嘉善大夫 都總府 副總管(從 2品)職도 받았고<sup>25)</sup> 그 後 光과 戰功으로 아들 金用瑚도 防踏鎮僉節度使의 位에 올랐다.<sup>26)</sup>

倭寇의 侵犯이 극심했던 高麗時代에 있어서의 倭寇船團은 2~3척이 보통이었는데,<sup>27)</sup>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乙卯倭變의 侵犯倭船 60척은 異例의 規模였으며<sup>28)</sup> 朝鮮前期에 1,000餘名이 倭賊이 侵犯하여 3日間이나 戰鬪하였다는 事實은<sup>29)</sup> 財貨의 掠奪 以外에 만 惡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當時의 官府에서도 이와 같은 動向을 把揮하여 濟州城을 死守하였던 것 같다.<sup>30)</sup>

“乙卯之變 倭賊監據高陵 臨壓城中 矢石交下 軍陣虛貨 士卒強弱 若燭照焉”<sup>31)</sup>

과 같이 이 戰鬪에서 倭寇는 高陵을 占據하여 城中을 내려다 보는 상태에서 熾熱한 矢石戰이 벌어졌다. 軍陣과 虛點과 士卒의 強弱함이 마치 촛불과도 같아서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여기서 말하는 高陵이란 俗稱 ‘가은의 마을’에서 南水口에 이르는 地點일 것이다.<sup>32)</sup> ‘가은의 마을’은 沙羅峰의 山麓에 있는 일종의 陵線으로서 州城과 富祿洞의 中間地點에 있다. 倭寇가 3日間 激鬪를 벌이는 동안 그 背景地로서 巨老를 포함한 富祿洞이 被害를 보았음을 想像하기에 어렵지 않다.

倭寇의 屬性은 侵犯하는 地域마다 放火하고 衣類·食糧 등을 掠奪하는 것이

24) 《增補耽羅誌》 448면

25) 《嘉善大夫金就鑑碑文》

26) 濟州島實蹟硏究社編, 《耽羅誌》(全) 科宦條, 81면 《增補耽羅誌》 15 人物 136면 참조

27)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16면 참조

28) 《增補耽羅誌》 448면에는 乙卯倭變때 侵犯한 倭船數를 80여수로 記錄되어 있다.

29) 金成祖將軍 後裔 古老들이 傳하는 바에 의하면 이때 射殺된 倭賊은 數百名이었다고 한다.

30) 《增補耽羅誌》 牧使郭吃條, 450면 참조.

31) 《耽羅紀年》 卷2, 45면.

32) ‘가은의 마을’은 ‘高陵의 마루’의 瓦前인 것 같다.

다. 禾北浦에 侵入한 倭寇는 南下하면서 放火를 하였고, 住民이 逃避한 사이에 食糧·燃料 등을 掠奪하여 3日間 戰鬪에 利用하였을 可能性이 充分히 있는 것이다. 達梁에 倭寇가 侵入했을 때에는 守城에 급급하였고, 濟州에서는 破賊으로 大捷하여 倭寇의 終熄에 決定的 契機가 되었으나 兩次 倭變에서 侵犯당한 地域의 被害는 컸던 것이다.<sup>33)</sup>

## 5. 乙卯倭變과 小林寺

濟州에 佛敎가 傳來된 時期는 新羅까지 遡及이 가능하다. 高麗 太宗 21年(938)에는 耽羅國 太子 末老가 來朝하여 星主·王子爵을 받았고, 高麗의 附庸國이 되어 官民의 通交가 빈번하였고, 肅宗 10年(1105年)에 耽羅郡으로 편입되었으므로 佛敎가 傳來된 時期는 遡及될 수 있으나 高麗의 元宗祖까지는 크게 普及되지 아니하였고, 民間의 求福的 慾望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로 土俗信仰에 의존하였다고 생각된다.

濟州島에 佛敎가 크게 普及된 것은 1270年代로 보아야 할 것이다. 金斗奉씨에 의하면 元宗 12年(1271年) 三別抄 金通精이 「入寇」하자 中軍元帥 金方慶이 軍士 1萬과 戰船 160척을 거느리고 元將 洪茶邱와 合力하여 討平하였는데, 그 후 元이 達魯花赤 總管府를 설치하게 되었고, 移來한 元民이 많았으며, 元의 佛敎와 神敎가 점점 들어와 四方에 寺刹과 神堂이 왕성하였다고 한다.<sup>34)</sup> 그리고 忠烈王 3年(1277年)에 元이 東西에 幕을 세우고 牛馬驢羊 등을 放牧하였으며, 同 26年(1300年)에는 元皇后 奇氏가 首山坪에 牧場을 설치하고 城內 東海濱三疊七峰下에 大寺刹을 創建, 七層塔을 세워 使者를 보내어 福을 빌며, 元堂이라 칭하니 이로써 佛敎가 날로 왕성하였다고 한다.<sup>35)</sup>

33) 達梁倭變 때에는 「主將喪首 繼而衝突 連城失守 子女爲其俘虜 室廬爲其焚蕩」(《明宗實錄》卷18, 10年 乙卯 6月 辛卯條)라 하여 濟州의 被害보다는 훨씬 더 컸다.

34) 金斗奉 《濟州島實記》, 2면 참조

35) 同上. 濟州島 宗教關係 文獻은 金奉鈞 「濟州島 歷史誌」 425면에 取錄되어 있다.

元堂은 現在의 元堂峰에 位置하였다.<sup>36)</sup> 그리고 「耽羅紀年」에는 “庚子二十六年 元大德四年…… 時元創水精寺 于都近川”<sup>37)</sup>이라 하여 같은 해에 元은 都近川에 水精寺을 創建한 것으로 되어 있다. 都近川은 州城 西 쪽에 있으므로<sup>38)</sup> 州城을 중심으로 寺刹을 東西에 각각 1개씩 創建한 셈이다. 「東國輿地勝覽」에는 成宗 12年(1481年)頃의 主要寺刹名이 記錄되어 있다.

〈表2〉 1481年頃의 佛宇<sup>39)</sup>

名	稱	所 在 地	名	稱	所 在 地
尊	者 庵	漢拏山 西쪽 고개	普	門 寺	巨口里丘 北쪽
月	溪 寺	州西쪽 獨浦 東南쪽	近	川 庵	朝貢川 위
水	精 寺	都近川 西쪽 언덕	小	林 寺	州東南쪽 10里
妙	蓮 寺	州西쪽 25里	觀	音 寺	朝天館浦
文	殊 庵	州西南쪽 27里	法	華 寺	東縣東西 45里
海	輪 寺(西資福)	州西쪽 獨浦	靈	泉 寺	靈泉川東岸
萬	壽 寺(東資福)	巾入浦 東쪽 언덕	成	佛 庵	成佛岳
江	臨 寺	州東쪽 威德浦			

濟州島에는 500個의 堂과 130餘個의 寺刹이 있었다는 說이 있으나<sup>40)</sup> 「東國輿地勝覽」에는 12個의 佛宇만이 記錄되어 있다. 130餘個의 佛宇의 大部分은 「東國輿地勝覽」이 刊行된 以後에 創設된 것으로 思料되고, 上記 15個의 佛宇는 歷史的으로 規模面에 있어서 朝鮮初期의 濟州島 寺刹을 代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小林寺는 〈表2〉와 같이 15個의 佛宇에 포함되어 있다. 15個 佛宇에는 4個의

36) 元堂峰은 一名 三陽峰이라고도 칭한다.

37) 金錫翼, 《耽羅紀年》, 20면

38) 都近川은 一名 朝貢川이라고 불렀다.

39) 《新增東國地勝覽》第38卷, 濟州牧, 佛宇條에 의거함.

40) 金斗奉, 《濟州島實記》, 31면 참조.

庵子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하면 寺字가 붙은 佛字는 모두 11個이다. 따라서 小林寺는 11 大寺刹에 포함된다. 11 大寺刹 中에서 水精寺는 前述한 바와 같이 元에 의하여 創建되었으므로 新羅나 高麗初期를 통하여 傳播된 寺刹은 그 밖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小林寺는 濟州島에서 가장 오래된 寺刹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筆者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小林寺趾로 보이는 '절터'에서 多量의 新羅土器 및 高麗磁器 破片이 發見되는 것을 보고 小林寺의 創建年代가 오래되었음을 推測할 수 있었다. 新羅土器와 高麗磁器는 朝鮮時代에도 使用될 可能性이 있고, 小林寺趾에서는 그 밖의 粉靑砂器와 白磁·瓦當의 破片을 많이 發見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小林寺는 朝鮮王朝 中期까지도 寺刹의 機能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小林寺는 이와 같은 濟州島 有數의 古刹이었으나 朝鮮中期에 廢寺되었다. 小林寺의 位置에 관한 文獻資料로서는 『東國輿地勝覽』과 『耽羅志』의 “在州東南十里”가 唯一한 것이다. 그리고 1954년에 淡水契에서 發刊한 謄寫本 『增補耽羅誌』에는 小林寺가 “濟州邑 東南 4킬로미터에 在하니 今廢”로 되어 있다. 『增補耽羅誌』의 記述은 『耽羅志』의 漢文을 풀이하여 說明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在州東南十里”의 州는 州城을 意味하므로 小林寺는 州城으로부터 東南 10리에 位置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筆者는 現 濟州市 富祿洞에 있는 속칭 '절터'를 小林寺趾로 보고 있다. 그 곳은 州城으로부터 東南 10리의 位置에 해당하는 地點에 해당된다. 濟州市 觀德亭에서 一周道路를 따라 東쪽으로 2킬로미터 地點에 東南 쪽으로 僻은 新作路가 分岐되어 있고, 分岐點에서 2킬로미터의 地點에 '절등산'이 있고, 그 앞에 富祿洞으로 가는 길이 갈려져 있다. 그 거리를 '절거리'라고 하며, 그 길가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을 '절샘'이라고 부른다. 절샘 東南 쪽에 隣接하여 있는 밭이 바로 法堂이 있었다는 俗稱 '절터'이다.

절터 南쪽에는 예전부터 '果園'이라고 칭하여지던 官營 果樹園이 있었다. 現在는 그 일대가 굴나무園地化하였지만, 그 곳 주민들은 굴나무園地化하기

이전 즉 1960年代 이전에도 그 곳을 果園으로 부르고 있었다. 朝鮮時代に 濟州島에는 약 60個의 官營 果樹園이 있었는데, 『耽羅志』에 “小林園在小林寺南”이라고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上述한 ‘果園’이 小林園이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果園’ 北쪽에 있는 절터는 小林寺趾가 되는 것이다. 『耽羅志』 祠廟條에 “神廟 在小林果園中”이란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小林園이 果園임에 틀림없다. 州城에서 東南 10里의 距離에 朝鮮中期의 것으로 보이는 陶磁器片이 出土되는 寺趾가 있고, 그 북쪽에 果園이 隣接하여 있다는 條件을 감안할 때, ‘절터’는 바로 小林寺趾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俗稱 ‘절샘’은 一名 寺泉으로서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했다고 한다. 金斗奉編 『耽羅誌』에는 寺泉이 “在巨老村南”이라 하였고, 『增補耽羅誌』에는 “寺泉이…… 濟州邑 禾北里 巨老洞에 在하다”로 되어 있다. 濟州島에 있어서는 특히 샘이 寺刹의 立地條件中에서 第1位로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寺泉을 중심으로 小林寺가 創建되었고, 小林寺를 중심으로 富祿洞과 巨老洞이 發達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41)</sup>

以上과 같이 小林寺는 濟州島 有數의 古刹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規模도 濟州島의 寺刹中에서 큰 편에 속하였다. 古老들의 證言에 의하면 “옛날에는 法堂 자리에 주춧돌이 남아 있었는데, 墓地의 石牆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日帝下의 道路擴張時에 小林寺趾가 毀損되어 小林寺의 規模를 正確하게 推定할 수는 없지만, 現在 散在되어 있는 器皿 조각과 瓦當의 破片의 量과 範圍로 미루어 보더라도 當時로서는 規模가 큰 寺刹이었음을 알 수 있다.

小林寺의 規模는 寺刹을 中心으로 한 聚落形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推測이 可能하다. 당시 濟州島에는 比丘僧이 적었고, 帶妻僧이 많았던 것 같다. “婦多男小 僧皆作家寺傍 以畜妻子”<sup>42)</sup> 와 같이 女子가 많았고 男子는 적었으며 僧侶는 모두 절 옆에 집을 지어 妻子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小林寺 근처에도 帶妻僧들이 居住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聚落을 形成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1) 富祿面은 巨路洞의 一部分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42) 《新增東國地勝覽》卷 38. 濟州條.

그리하여 小林寺 僧侶들의 居住地로서 형성된 것이 富祿洞이라고 생각된다. 現在の 富祿洞은 4·3事件 때 全燒되었거나 그 以後에 再建된 10餘戶의 작은 農村에 지나지 아니하다. 그러나 數百年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村落에 속하였다는 事實을 村落의 遺跡과 古老들의 證言에 의하여 推定할 수 있다.<sup>43)</sup>

富祿洞이 僧侶와 그 家族의 居住地로 形成되었다는 命題는 富祿洞이란 名稱으로써도 立證이 可能하다. 富祿洞은 俗稱 '부루기'라고 하는데, 富祿은 '불우'의 取音이요, '불우기'의 불우는 바로 佛宇가 아닐까. 佛宇는 佛殿을 의미하며, 朝鮮時代 末期까지 흔히 使用되던 말이다. 『東國輿地勝覽』에도 佛殿 대신 佛宇란 말이 일반적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리고 불우기의 '기'는 서울의 延禧契처럼 '契'이며, 地域을 가리키는 團體 내지 接尾語로 볼 수 있다. 즉, '불우기'는 佛宇가 있는 마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地理叢書 『邑誌』 濟州島篇에 収録되어 있는 光武 3年 5月刊 『濟州郡邑誌』의 『濟州地圖』에는 富祿이 '夫老'로 表示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면 佛宇洞이 夫老洞으로 借字되었다가 音이 비슷하면서 뜻이 더욱 좋다고 생각되는 富祿洞으로 變更되었다고 생각된다.

聚落의 일반적 發達過程을 보면, 그것이 散村이건 集村이건 간에 일단 成立되지만 하면 人口의 增加와 그 社會的 移動에 의하여 커지는 傾向이 있다. 小林寺 僧侶의 居住地로 形成된 聚落도 人口의 增加와 他地域으로부터의 移住者數의 增加에 의하여 점차 커졌음에 틀림이 없다. 즉, 小林寺 옆에 샘이 있고, 작은 냇가 있으며<sup>44)</sup> 平地와 山川의 景觀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地點이기 때문에 僧侶의 居住地는 凝集力을 발휘하여 群居屬性을 자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小林寺 僧侶 居住地가 邑城에서 10里의 距離에 있고, 黃蛇坪과 禾北鎮이 中間에 位置하고 있다는 事實도 聚落의 발달에 크게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곳은 濟州島 최대의 聚落인 城內와 徒步로 往來하기에 適當한 位置에 있을

43) 富祿面 周邊에는 某某 '터'라는 이름이 붙은 밭이라든가 오래된 집터가 많다.

44) 이 河川은 俗稱 '사송내'라고 하며 巨老에서 別刀川과 合流된다

뿐만 아니라<sup>45)</sup> 軍事訓練場이었던 黃蛇坪과 防衛據點이었던 禾北鎮의 中間地點에 있어서 軍事的 要地이기도 하였다. 『增補耽羅誌』에 의하면 黃蛇坪은 “濟州邑 禾北里 境上에 在하니 古昔에 軍兵을 教練하던 場所라 四面이 廣濶하여 萬兵을 可히 容納할 만한 平坦地인데, 現今에는 民有로 되었으나 古昔將臺基地는 隱隱히 있다.”<sup>46)</sup>고 한다. 禾北鎮은 朝鮮時代 港口의 原型이 잘 保存되어 있는 禾北港에 자리잡고 있었다. 禾北鎮이 築城되고 當地 最大의 鎮으로 格上된 것은 朝鮮 肅宗 4年(1678年) 以後이지만<sup>47)</sup>, 그 以前 특히 高麗時代에 倭寇의 侵奪이 빈번했을 때에는 重要한 防衛據點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禾北은 別刀로 俗稱되었다. 『東國輿地勝覽』에는 禾北岳이 別刀岳으로 되어 있고, 禾北川은 別刀川, 禾北橋는 別刀橋로 表示되어 있다.<sup>48)</sup> 그리고 『耽羅志』에는 「禾北川 在州東十三里 早渴雨漲 浦口有候風館」과 같이 別刀川이 禾北川으로 되어 있다.<sup>49)</sup> 『東國輿地勝覽』이 『耽羅志』보다 먼저 編纂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別刀’와 ‘禾北’의 先後關係는 地名의 變遷過程 研究에 있어서 暗示하는 바가 크다. 『耽羅志』禾北浦條에도 “禾北浦 在州東十里 古名別刀 官員之送迎 商人之往來 皆由於此 故浦口 有銷魂亭 別刀之名 盖以此”<sup>50)</sup>와 같이 別刀가 禾北의 古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別刀라는 이름이 銷魂亭에서 왔다는 部分에 대해서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칼(刀)은 魂不附體와 關係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字意的 解釋에 의한 附會說일 可能性이 크다.

筆者는 ‘別刀’를 ‘벼뒤’의 借字로 보고 있다. 別刀에 있는 別刀岳은 俗稱 ‘벼뒤오름’ 또는 ‘뒤오름’이라고 하며, 그 앞에 別刀川을 ‘벼릿내’라고 하는데

45) 城內를 一名 大村이라 부른 때로 있었다. (『增補東國輿地勝覽』 第38卷, 古蹟條, 참조)

46) 『增補耽羅誌』 80면.

47) 『耽羅紀年』 卷3, 62면 참조.

48) 『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山川, 橋梁條.

49) 禾北港에는 官員이 渡航할 때 待機하던 候風館이 現在까지 남아 있다. 現在하는 우리나라 最大의 李朝港이라고 말 할 수 있는 禾北港과 더불어 重要한 鄉土史蹟을 이루고 있다.

50) 金斗奉, 『耽羅誌』(全), 日本 大板 濟州島 實蹟 研究社, 1933, 16면



‘벼릿내’, ‘벼뒛내’의 와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漢字가 普及됨에 따라 地名도 漢字를 借用하게 되었는데, ‘別刀’는 ‘벼뒛’의 取音이라고 생각된다. 즉, 처음에는 現在의 禾北 1洞名이 別刀였고, 禾北川은 別刀川, 禾北峰은 別刀峰으로 通稱되다가 점차 禾北洞·禾北川·禾北峰이란 말이 使用되었고, 別刀의 官用 洞名은 禾北으로 定着되었다고 생각된다.

禾北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使用된 時期는 朝鮮初期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朝鮮朝에 와서 庶民層의 漢字 普及率이 높아졌다는 것과 둘째로 刀字에 대한 일반적 觀念이 朝鮮時代에 있어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高麗末까지만 하더라도 刀字는 刀貨(돈)를 象徵하여 嫌惡感은 그리 강하지 아니했다.<sup>51)</sup>

高麗時代에는 錢 대신 刀字가 흔히 使用되다가 朝鮮時代에 와서 刀字가 오로지 錢의 뜻으로 使用됨에 따라서 事情이 달라졌다. 別刀의 官用 洞名이 禾北으로 決定된 背景에는 이와같은 觀念이 作用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別刀의 原名인 ‘벼뒛’을 중심으로 ‘벼’는 取意하여 ‘禾’가 되고 ‘뒛’은 ‘北’이 되었던 것이다. 朝鮮時代에는 北을 뒛라고도 하였으므로<sup>52)</sup> ‘벼뒛’이 禾北으로 借字되는 理致는 朝天의 ‘뒛계’가 北村으로 된 것과 같은 것이다.

小林寺의 僧侶 居住地로서 形成된 富祿洞은 오늘날의 行政區域上으로는 禾北 2洞에 속하지만 원래는 規模에 있어서도 이 地域의 中心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別刀→禾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小林寺의 背後聚落인 佛宇洞은 朝鮮朝의 排佛政策에 따라 점차 名稱上의 拒否 反應을 일으키게 되었고, 따라서 音이 비슷한 漢字를 借用함으로써 富祿洞이란 洞이 定着되었던 것이다.

富祿洞은 점점 커져서 富祿面으로 되었다는데,<sup>53)</sup> 주로 北쪽으로 發展하여 2

51) 新羅時代에는 知刀와 같이 刀字가 貴族 婦女子名에 使用되었고, 我刀干, 汝刀干과 같이 共同體支配層의 普通名辭로도 使用되었다. 그리고 高麗時代에는 重量의 單位로서 錢 대신 刀字가 使用되었으며, 刀는 ‘돈’의 語源으로 되었다. 金柄夏 “高麗時代의 鑄貨의 流通과 ‘돈’의 語源”, 《高承濟博士古稀紀念 論文集》 참조.

52) 《訓蒙字會》 참조.

53) 古老들의 證言의 의한. 行政區域의 公式名稱으로서의 富祿洞 또는 夫老面에 관한 文獻資料는 아직 發見하지 못하였다.

里 程度의 距離에 있는 巨老洞과 거의 合쳐지게 되었다. 巨老洞은 別刀(禾北 1洞)와 富祿의 中間에 位置한 마을이다. 巨老洞은 富祿까지 合하여도 1987年 現在 185戶에 지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오랫동안 '선비마을'로 통하였으며, 4·3事件 때까지만 하더라도 濟州島에서는 보기 드물게 瓦葺 家廟가 두 군데나 있었다.<sup>54)</sup>

巨老가 '선비마을'로 全島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朝鮮時代 純祖朝 이후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梁有成 寶城郡守와 高處亮 鎭海縣監 등 巨老出身 科宦이 살다가 後에 他地方으로 移住했지만, 純祖朝 이후는 事情이 달라졌다. 純祖 14年(甲戌)의 巨老出身 金英集·金英業·金英樂 3兄弟의 文科 同榜及第는 우리 나라 科擧史上 特記할 만한 事實이었다.<sup>55)</sup> 더구나 文科 及第者가 많지 않았던 濟州島에 있어서 3兄弟가 같은 날에 及第하였으니 그 祝祭 분위기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sup>56)</sup>

3兄弟는 文行이 뛰어나서 著名했었지만,<sup>57)</sup> 朝廷에서는 3兄弟 同榜及第를 큰 問題로 삼게 되었다. 前述한 乙卯倭變의 有功者 金成祖의 後孫인데다가 客觀的 評價를 반복할 수 없고, 그렇다고 科擧史上 類例가 없는 3兄弟 同榜及第를 公認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3兄弟 同榜及第는 '門戶太盛'이라 하여 末第를 拔榜하게 되었다고 한다.<sup>58)</sup> 高麗王朝와 朝鮮王朝를 통하여 濟州出身 文科 及第者는 모두 43名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點으로 보아 朝廷에서 '門戶太盛'을 우려한 것은 그만큼 理由가 있다고 생각된다. 王權의 維持와 地方의 分權化를 防止하기 위해서 門戶가 太盛하고 地方의 勢力이 強化되는 것은 바

54) 4·3事件 直前까지만 해도 祭享하여 士大夫의 痕迹을 엿볼 수 있었는데, 現在는 廢廟되었다. (《羅州金氏族譜》 참조)

55) 《嘉義大夫 金就鑑 碑文》, 《朝鮮王朝實錄》, 卷17, 14年 甲戌 5月 庚辰條, 日語版《朝鮮人命辭典》, 《增補耽羅誌》文學條 382면 참조. 그리고 3兄弟는 金成祖 建功將軍의 9世孫이다. (《羅州金氏族譜》 참조)

56) 한 사람이 文科 及第者가 나와도 國王이 내린 紅牌를 받는 날로부터 '열두 잔치'가 벌어지는 풍속이 있었다.

57) 《增補耽羅誌》382면 참조.

58) 同上

람직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金英集은<sup>59)</sup> 通訓大夫 禮曹正郎·銀溪 察訪 등의 官職을 지냈고, 仲氏인 金英業은 司憲府掌令·濟州判官 등을 지냈 으나<sup>60)</sup> 末弟인 金英樂은 著名한 詩人으로서 『橘林院誌』에 業績이 發表되었고, 明月里의 右學堂과 細花里의 左學堂을 設立하는 한편 濟州鄉校 賓興都訓長이 되어 平生 동안 白衣從軍하였다.<sup>61)</sup> 그 以後 巨老出身 儒生이 濟州鄉校의 要職을 맡는 例가 많았고, 富祿을 포함한 巨老洞에 선비가 많아 ‘선비마을’로 통 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富祿洞이 北쪽으로 뻗어서 巨老洞과 癒着되고 巨老가 선비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巨老洞의 歷史는 그리 짧다고 말할 수 없다. 이 地域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小林寺가 開創되기 以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地域은 城內(大村)에서 10里의 距離에 있고 別刀川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南쪽에는 結샘이 있고, 北 쪽에는 東濟院泉 등이 있어서 可居地로서의 條件을 갖추고 있었다. 巨老에는 樹齡이 千年 以上 되었다는 ‘대보터’ 평나무를 비롯하여 ‘청방터’ 평나무 등 人作古木이 散在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sup>62)</sup> 巨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時期는 상당히 遡及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巨老에 散村形態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점차 集村이 되었다고 하면 그 中心地域은 어디였을까. 筆者는 上述한 人作古木의 分布와 地形 등으로 미루어 보아 ‘등돌거리’를 想定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곳은 現在 등돌이 남아 있는 거리이며 오랫동안 마을의 中心地가 되어 왔다. ‘등돌’은 들돌로서 朝鮮時代에는 賦役能力 試驗石으로 使用되었다. 例컨대 波濤 때문에 자주 崩壞되는 築港 補修時에 動員되는 住民의 賦役能力을 試驗하던 들돌이었던 것이다.

59) 1775年生(乾隆 乙未), 字는 汝成이다.

60) 濟州判官 金英業은 摠物堂과 鄉社堂을 重修했고, 鄉校內的 啓聖祠建立을 上疏하여 完成을 보게 되었다. 後에 그 治績을 기리는 뜻에서 ‘謹勳居職 廉公爲治 捐廩建廟 起發葺廳 獲膺書錦 奄哭靈輻 勒之于石 以寓過思’라 격쳐 있는 <判官金公英業清德善政碑>가 濟州教育大 근처에 세워졌다.

61) 金英樂의 字는 明來이다.

62) 古老의 證言의 의한.

그렇다면 이 地域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當時에 있어서는 마을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筆者가 考證한 바로는 '늬은이터'가 거기에 該當된다고 생각한다. '늬은이터'는 마을의 中心地인 上記 '등돌거리' 근처에 있으며, 오래 前에 살았던 집터이다. 長壽한 늬은이가 살았던 집터라는 뜻에서 '늬은이터'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前近代社會에 있어서는 平均 壽命이 40歲에 未達하였다. 平均 壽命이 延長된 것은 牛痘의 普及, 醫學과 上水道 施設 등이 發達한 以後의 일이다. 巨老는 城內처럼 人口가 稠密하여 傳染病에 感染될 機會가 많지 아니하였고, 漁村의 경우처럼 危險에 따른 死亡率도 높지 않았으므로 長壽 마을이었을 可能性은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輿件에서 百壽를 누린 老人이 '늬은이터'에 살았다면 話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집터 이름이 '늬은이터'로 通稱되어 洞名化할 可能性은 充分히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巨老 南쪽에 있던 '큰터왓'이 洞名化한 것과 같은 것이다.

巨老洞은 결국 '늬은이터'를 中心으로 形成된 聚落이며, 小林寺와 더불어 成長한 富祿洞의 外延의 擴大는 巨老와 癒着되어 東쪽으로는 道連洞과 陸續할 정도로 커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筆者는 最近에 巨老有志 몇분이 쓴 草稿「設村由來」를 入手하였는데 거기에는

“現 새미(생……筆者) 附近에 寺刹을 짓고 居住하기 始作하였는데, 漸漸 蕃衍하여 큰 部落을 이루니 洞名을 富祿이라 稱하였다. 그 後 數世紀에 亘하여 東으로 現 道連洞과, 西北으로는 現 巨老院 뒤(現 圓明寺 附近)까지 部落이 連繫되니 이른바 富祿面이라 改稱하였다 한다. 이 때가 바로 李朝 太宗 때이며, 現 檢問所 西쪽 金海金氏의 先祖 墓碑文에도 巨老에 隱居하였다는 證據가 뚜렷이 있다. 옛 어른들의 傳說에 의하면 其後 李朝 明宗 甲辰에 禾北峰 將軍 佩劍形에 軍威吳氏의 先祖 諱尙愚를 埋葬할 時 地師가 말하기를 向後 道連里로부터의 火患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는데, 果然 其後 몇 10年 後에 道連里로부터 發生한 火災가 巨老로 飛火, 院 뒤까지 富祿面 一帶가 一朝一夕에 焦土가 되어 그리 繁盛하였던 寺刹도 어디론가 옮겨가고 部民들도 離鄉

하다가 남은 部民들은 新設 村落 卽 巨老下洞 냇가름이라는 곳에 居住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1960年代에 筆者가 口述資料를 蒐集할 때에도 古老들이 富祿·巨老의 擴大와 400年前의 大火災에 관하여 陳述하였다. 大火災事件이 發生하였다는 내용은 同一하나 地師가 말하였다는 火災豫告는 그 科學性이 問題가 될 것 같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筆者는 그것을 倭寇의 放火에 의한 大火災事件으로 보고자 한다. 農家가 띄엄띄엄 散在되어 있는 富祿面 一帶가 一朝一夕에 延燒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時期的으로 이때가 乙卯倭變과 一致할 뿐만 아니라 倭寇의 放火屬性을 勘案하면 火災 原因에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所謂 巨老를 포함한 富祿面의 大火災는 倭寇의 放火에 의하여 發生한 것이 아닐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明宗 때 道連里로부터 發生한 火災가 巨老로 飛火하였고, 富祿面 一帶가 一朝一夕에 焦土가 되어 그리 繁盛하였던 寺刹도 어디론가 옮겨가고 部落民들도 離鄉하였다는 것은 바로 乙卯倭變이 낳은 慘狀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무리 草家라 할지라도 몇 평방 킬로미터에 散在되어 있는 農家가 自然的으로 延燒될 수는 없는 것이다. 筆者가 蒐集한 古老들의 證言에 있어서도 ‘自然的’으로 延燒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乙卯倭變에 대해서도 金成祖 建功將軍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傳해오는 말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富祿面 一帶가 倭寇의 放火에 의하여 全燒되었다면 僧侶의 居住地로서 村落形成의 契機가 되었던 小林寺도 이 때 延燒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小林寺의 燒盡을 節度使 李衡祥의 廢寺政策과 結付시키는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研究하여야 하겠지만, 洞里가 全燒되었는데 洞里와 隣接한 小林寺만이 無事할 수 있겠느냐의 疑問은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李衡祥은 永川出身으로 肅宗 28年(1702年)에 節度使로 赴任하여 1年間 在任하는 동안에 廣壤堂을 비롯하여 三邑의 淫祀와 佛宇 130餘所를 焚燒하고 巫覡 400여명을 歸農시켰다.<sup>63)</sup> 李衡祥의 이와 같은 崇儒排佛政策은 지금으로부터 280年前에 있

63) 《增補耽羅誌》條制使 李衡祥條, 466면 참조.

있던 일이며,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比較的 자세하게 傳해 내려 오고 있었으나 小林寺를 毀損시켰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 그 原因은 小林寺의 毀損 年代가 훨씬 오래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와 같은 點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小林寺의 燒盡과 乙卯倭變은 밀접한 關係가 있다는 心證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小林寺趾로 보이는 '절터'에서 多様な 陶磁器와 瓦當의 小破片이 發見된다는 點에서 보더라도 小林寺는 不意의 災難에 의해서 器皿을 꺼낼 時間的 여유도 없이 燒盡되었던 것 같다. 筆者가 1967年頃에 小林寺趾로 보이는 속칭 '절터'에서 蒐集한 土器·高麗磁器·粉青沙器·白磁·瓦當 등의 破片 中에는 高麗磁器의 破片이 相對的으로 많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절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器皿이 不意의 火災로 미처 꺼낼 시간적 여유도 없이 烏有化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sup>64)</sup>

## 6. 兩次倭變의 對比

乙卯倭變의 性格에 관하여서는 前述한 바이지만, 濟州에 侵入한 倭寇의 主體에 대해서는 좀 더 究明할 필요가 있다. 乙卯倭變의 第1次 侵入 즉 達梁浦 倭變을 일으킨 倭寇의 船團과 第2次 侵入 즉 濟州 倭變을 일으킨 船團이 같은 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別個의 것인가에 관한 日本側의 史料는 아직까지 發見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史料로써 그 同一性을 어느 정도 證明할 수 있다. 明宗 10年 6月 達梁에 侵入한 倭寇는 약 20日間 掠奪과 放火를 일삼다가 르지 退却하였다가 20여일 후 濟州를 侵犯하였는데, 倭寇船團의 規模가 거의 같을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側이 蒐集한 情報로 보아 同一한 무리였다는 心證이 굳어진다.

64) 小林寺와 그 옆에 있었던 小林園(官營果樹園)의 遺址는 遺址碑라도 세웠으면 하는데 이 論文이 脫稿하는 現在 대대적으로 道路擴張工事가 進行되고 있고, '절터'와 '절샘'은 흔적을 完全히 파헤쳐져서 原位置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아쉬운 마음 禁할 수 없다.

濟州牧使 金秀文의 馳啓에 의하면 濟州倭變이 일어나기 6일전인 6월 21일에 倭船 40여척이 甫吉島에서 바로 濟州 앞 바다에 와서 1里 정도의 距離에 碇泊하였다. 이 倭船團은 達梁浦에 上陸하여 掠奪과 放火를 하다가 退却한 일부 倭寇에 의하여 構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命召에 의하여 三公과 備邊司 堂上이 賓廳에 모여 對策을 議論했을 때에도 同一倭寇의 所行임이 指摘되었다. 즉, 倭寇들이 甫吉島에 들어간 것을 必是 康津에서 도둑질 하던 자들이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다.<sup>65)</sup> 이 해 8월에 全羅道 巡察使 李浚慶의 復命에 의하면, 達梁倭變 때 倭賊船은 鹿島에서 敗北한 뒤에 白梁과 甫吉 등에 많이 碇泊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兵船을 모아 崔豪로 하여금 進擊하게 하고 趙安國으로 하여금 支援하게 하였으나 倭賊은 이미 退却한 뒤였고, 倭船數는 50척이었다고 한다.<sup>66)</sup>

어쨌든 6월 21일 濟州 앞 바다에 나타난 倭船 40척은 退却한 船舶數에 비하여 적은 數인데, 나머지 船舶은 掠奪物을 本國으로 가지고 가는 데 動員되었을지도 모른다. 6월 21일 경에는 40여척이 船舶이 작은 島嶼들을 중심으로 하여 헤매면서 第2次 掠奪對象地인 濟州島의 形勢를 偵探하다가 滿船의 準備를 한다음 6월 27일에 침범을 감행하였다고 생각된다. 倭寇가 濟州를 2次掠奪對象地로 定한 것은 當時에 있어서의 倭寇이 性格轉換과 어느 程度 關係가 있지 않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時期의 倭寇는 國際的 性格을 띠고 있었고<sup>67)</sup> 그들에게는 絶海孤島에 據點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倭寇는 達梁 싸움에서 朝鮮軍의 脆弱點을 파악해 가지고 濟州城도 一擊에 陷落될 것으로 判斷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濟州城 攻擊은 그들의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하였다. 우선 濟州牧使 金秀文의 리더십이 강한 것이 康津·長興 등의 地方官과는 相異하였다. 濟州大捷에서 倭船 9척을 拿捕한 것이라든가,<sup>68)</sup> 勇敢한 四人 馳馬突擊隊

65) 《明宗實錄》 권18. 10年 6月 辛卯條 참조.

66) 同書 卷19. 8月 丁丑條 참조

67) 예컨대 明宗7年(1552년) 5월에 侵入한 倭寇中에는 中國人이 包含되어 있었다. (《耽羅紀年》 卷2, 참조)

68) 《耽羅誌》 濟州牧, 名宦 金秀文條 참조

의 戰績 등 達梁倭變의 경우와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成果가 컸다. 朝廷에서도 達梁倭變에 대해서는 指揮官의 消極的 態度和 士氣의 低下에 대하여 자주 論難하였으나 濟州倭變의 成果에 대해서는 達梁倭變의 雪恥로 간주하였고 흐뭇해 하였다. 그 해 8월 10일 濟州宣勞使 尹毅中을 急派하는 자리에서 國王은 金秀文 牧使가 士卒들과 한 마음이 되어 防禦에 힘썼다고 하고 加資大夫와 賜衣를 命하였으며, 宣會를 베풀게 하고 술을 下賜하였다.<sup>69)</sup>

宣勞使 尹毅中이 濟州로 간지 2개월 후에 그는 上京하여 復命하였다. 濟州는 연속 凶年이 들어 城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나 兵器만은 完壁하다고 했다. 더구나 牧使 金秀文, 判官 李善源, 大靜縣監 孔士儉 등을 有能한 適任者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濟州는 備邊司에서 議論하여 兵禍를 입은 곳에 租稅를 免除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流亡하였던 백성들이 歸農하려고 하는데 戶曹는 倭寇 때문에 焚蕩되었거나 戰死者가 있는 家戶에만 租稅를 免除하려고 論議하고 있기 때문에 失望이 클 것이라고 했다.<sup>70)</sup> 濟州倭變은 우리 側이 大勝으로 끝났고, 倭寇의 猖獗에 制動을 걸게 되었지만<sup>71)</sup> 官에서는 이것을 거울 삼아 濟州城의 改築에 힘쓰고 무기도 完壁하게 準備하고 있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이 達梁倭變과 濟州倭變을 일으킨 倭寇의 主體가 基礎的으로 同一하나 結果에 있어서는 많은 差異가 있었다. 達梁倭變은 初戰擊退에 失敗하여 被侵地域이 넓어졌고 우리 側 被害가 컸으나 濟州倭變의 경우는 有能한 指揮官의 指揮下에 決死的으로 突擊한 勇敢한 軍士들의 功으로 大勝하여 被害를 極小化할 수 있었으며, 많은 倭賊을 殺害함으로써 倭寇의 猖獗을 防止할 수 있었다.

## 7. 乙卯倭變이 對日貿易에 미친 影響

69) 《明宗實錄》卷19, 10年 8月 壬申條 참조.

70) 同書 卷19, 10年 10月 癸酉條 참조

71) 그 후에도 倭寇의 侵犯은 가끔 있었으나 그 規模도 乙卯年과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작아졌다.



## 乙卯倭變考

乙卯倭變은 對日貿易은 對日貿易面에 있어서도 큰 影響을 미쳤다. 前述한 바와 같이 三浦倭亂을 契機로 하여 壬申約條가 成立되었고, 이 約條에 따라 우리 나라는 對馬島主에 대한 中래에 歲遣船 50척이 25척으로 半減되었다. 이때 歲賜米豆 200石도 半減되었으므로 對馬島主로서는 여간 큰 損失이 아니었다. 對馬島主는 10년간 꾸준히 交涉하여 歲遣船이 追加되었으나 明宗 2年(1567年)의 丁未約條에서는 다시 25척으로 還元되었다. 對馬島主는 그 후에도 特惠의 貿易權의 回復과 歲賜米豆의 增額을 꾸준히 交涉하였으나 우리 側은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時期에 乙卯倭變이 일어났는데, 그 후 이 倭變을 寄貨로 해서 貿易權 回復交涉이 再開되었다.

濟州倭變이 일어나기 10일전인 明宗 10年 6月 14日 對馬島主 宋盛長은 別遣船을 보내어 千여척의 賊船이 對馬島 등 島嶼를 掠奪한 後 90여척이 세 무리로 나누어 필시 朝鮮 方向으로 간 것 같고, 나머지 船舶은 잘 단속하여 貴國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內容의 書契를 傳達하였다. 그 內容의 事實與否에 관해서는 問題가 될 수 있겠으나 濟州倭寇 直前의 倭寇의 動向과 對馬島主의 倭寇의 關係에 대해 示唆하는 바가 크다.<sup>72)</sup> 對馬島主는 兩次 倭變이 一段 落된 8月 5日에도 別遣船을 보내어 島主는 7月 26日에 賊船 1척을 追擊케 하여 배에 뒹긴 倭賊 25급의 머리를 잘라서 보낸다는 內容과 ‘嘉靖乙卯三月日羅州所納兵鷺上’이라고 적혀 있는 雨傘1柄을 노획하여 보낸다는 事緣이 적혀 있는 書契를 傳達하였다.<sup>73)</sup> 그리고 書契를 가지고 온 島主의 特送 平調光은 그 功으로 堂上職(名譽職)을 要請함과, 동시에 半減된 歲遣船과 歲賜米豆의 復舊를 請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倭夷는 속이기를 잘함으로 乙卯倭變에 對馬島가 共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죽은 者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와서 바치고 歲遣船數의 復舊와 賞賜를 노린다고 判斷하여 그대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平調光에게 護軍職이 授與되었을 뿐이다.<sup>74)</sup> 그런데 그 해 閏11月에는 日本國 西海

72) 《明宗實錄》卷18, 10年 6月 丁丑條 참조

73) 同書 卷19, 10年 8月 甲戌條 참조

74) 同書 丙子條, 同書 11月 乙未條 참조

路上松浦 唐津太守 源勝이 아들이라고 稱하는 源盛滿을 시켜 禮曹 3大人 앞으로 書契를 보냈다. 書契의 骨字는 근래에 日本 海賊이 明 나라를 侵犯하였다는 것과 今年 봄에 明으로 가려던 賊船 1백척이 五島에 碇泊해 있다가 우리 나라를 侵犯했다는 것, 지난 7月 下旬에 歸國하던 賊船이 難破한 事實이 있고, 그 중 1척이 唐津에 漂流되었는데 거기에는 70名이 타고 있어서 賊을 죽이고 배를 불태웠다는 것, 倭賊이 가지고 있던 우리 나라의 兵符를 노획하여 돌려 보낸다는 것, 따라서 우리 나라가 그들에게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면 더욱 忠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sup>75)</sup> 그는 全羅兵使 元續이 掠奪 당한 57의 兵符 중에서 10個를 返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倭人の 行蹟으로 미루어 書契의 內容에 대해서 半信半疑하였다. 事實에 있어서 對馬島主가 源勝의 이름으로 書契를 보냈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 그러나 兵符를 돌려 준 好意를 無視하면 倭寇再侵의 後患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源盛滿을 副護軍에서 上護軍으로 昇進시켰고, 銀鈸帶를 주었다.<sup>76)</sup>

그 후에도 여러 차례 倭人들이 書契를 가지고 와서 倭寇鎮壓에 功을 세웠다고 主張하였으며, 島主는 歲遺船의 復舊를 請願하여 결국 明宗 12年(1557年) 4月 歲遺船 5척을 加給하는 것을 主內容으로 한 丁巳約條의 成立을 보게 되었고 그 以後 朝日貿易은 새로운 樣相으로 展開되었다.

## 8. 結 語

乙卯倭變은 後期倭寇 最大の 侵略으로서 朝鮮前期의 對日貿易과 倭寇와의 關係를 研究하는 데 있어서 示唆하는 바가 크다. 朝鮮前期에 對日貿易體制가 確立된 것은 倭寇의 鎮壓을 위한 것이었는데, 乙卯倭變이 일어나서 朝廷에서는 당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達梁의 乙卯倭變은 各地에서 많은 軍士가 派遣되어 약 20일만에 간신히 수습이 되었으나 이어서 2次的으로 濟州에서 倭變

75) 同書 12月 丁酉條 참조

76) 同書 12月 乙巳條 참조

### 乙卯倭變考

이 발발하였다. 이 論文에서는 1次倭變과 2次倭變의 展開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濟州倭變의 主流倭寇는 全南의 몇 個 郡을 占領하였고, 沿海 各地에서 掠奪과 放火를 일삼던 무리들이었다. 3日間의 熾烈한 戰鬪 끝에 우리 側이 大勝함으로써 倭寇의 猖獗을 終熄시키는데 決定的 契機가 되었다. 乙卯倭變은 日本人의 單純한 海賊行爲가 아니라 宣戰布告가 없는 戰爭이었다. 濟州大捷은 後期倭寇의 성쇠에 影響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濟州城의 改築과 防衛體制 그리고 濟州島 士大夫層의 形成에도 어느 정도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反面에 濟州倭寇의 被害도 컸다. 몇개의 洞里가 全燒되었고 由緒 깊은 小林寺도 이 때 灰塵되었다고 생각된다. 小林寺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學界의 照明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論文에서는 그 位置와 消長에 대해서 實證的으로 究明하였다.

全體的으로 보면 乙卯倭變은 「丁巳約條」의 成立에 있어서 決定的 影響을 미쳤고, 그 以後 朝日貿易은 새로운 樣相으로 展開되었다. 乙卯倭變 以後 防衛體制가 強化되기는 하였으나 所謂 備邊司의 權限의 擴大問題는 乙卯倭變 뿐만 아니라 壬辰倭亂 등 複合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